

회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Bottom-up 시스템

정보과학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차기회장 후보 박희진 교수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학회에 회비를 내는 학회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원 분들께서 원하는 일은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회원들께서 원하시는 정보과학회 영문저널의 SCI(E) 등재와 소사이어티(연구회, 지부)의 자율권 강화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께서 원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등록을 부탁하는 불필요한 전시성 학회행사는 없애겠습니다. 더 나아가 회원 분들께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학회 내부에 bottom-up 의견 수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렴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과학회 영문저널의 조속한 SCI(E) 등재:** SCI 등재 저널을 가진 다른 학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학회에서 SCI 저널 등재 경험을 가진 분이 정보과학회 회원이라면 이 분의 경험이 정보과학회 안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소사이어티가 자체적으로 저널을 만들어서 SCI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저널은 SCI 등재 이후에도 해당 소사이어티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SCI 등재 유지에 좋습니다.
2. **학회 실적만을 위한 불필요한 행사 자제:** 실질적인 수요가 크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등록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의 행사 개최는 외부에 보여주기에는 좋으나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모성 행사를 자제하고 더 시급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3. 이 이외에도 BK 사업단에서 컴퓨터분야와 전자분야의 분리, 소사이어티(연구회, 지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법제화, 학회와 산업체간의 실질적 산학협력의 활성화, 온라인 회의를 통한 전국 회원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 등의 중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기회장에 당선되면 전체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bottom-up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bottom-up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요구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부터 실현하기 위해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bottom-up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학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기회장 후보 박희진 올림